

2007. 12. 7(金)

第166回 東草市議會(第2次定例會)

市政質問書

1.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논의 공론화를 위하여
(김성근 의원)
2.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김성근 의원)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
(김진기 의원)

東草市議會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제 목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논의 공론화를 위하여	담당실과	자치행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
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3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요지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부터 수년째 지속되
고 있는 관광상경기 침체, 수산업 부진 등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
제의 해결이라는 지상의 과제에 봉착하고 있어
이제 영북권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재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 1995년 인근 군(郡)과의 통합을 추진할 때와 비교하
여 현재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한 주민의식도 등 재반여
건들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당시 인근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혐오시
설인 쓰레기처리시설이 이전되게 되고, 속초시에 상수원을 내주어
야 하므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등 상당한 설득력 있는 이야
기들이 회자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 착수와 상수원의 자체 조달사업 착수 등의 인근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련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영북권지역의 경기침체가 정주인구 감소로 이어져 올해 들어서 10개월간에만 영북권 시·군의 인구가 무려 1,697명(1.1%)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그동안 우리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관광서비스 산업의 한계를 공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단위 관광시설·부품산업 공장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나,

면적의 협소, 인구의 과소 등으로 각 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인 유치활동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장래 우리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북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명문대학 입학률이 전국 하위권에서 답보상태를 좀처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0년대 초가 되면 현재 계획 중인 동해고속도로가 최북단지역까지 모두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자치단체간 주민들은 약 30분정도의 생활권에서 상호 유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교통망 확충, 통신망 개선 등으로 우리사회 구조가 크게 변모하면서 지방행정 구역이란 패러다임(paradigm)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통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와 인근 시·군은 경쟁적으로 미래의 신성장산업이라며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독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시설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시설의 경우도 중·대용량의 1기를 운영함이 효율적이나 각 자치단체마다 소용량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현행 과소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우리지역은 사회구성의 기본요소인 사람(인구)이 급감하고, 사람을 먹여 살릴 기간산업들이 공동화 현상에 빠져 있으며, 장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기반 취약 등 더 이상 혼자서만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통한 영북권 지역의 공동발전과 장래를 위해 행정, 각 지역의 정치권·시민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기능수행이 점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가지 항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5년 이후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있는지, 향후 인근 시·군과 본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인근 시·군과의 통합 의지가 있다면 그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의 통합추진이 각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제 목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 추진	담당실과	도시과

본 의원은 2004년 4월, 2006년 9월 등 이미 2회에 걸쳐 속초북부권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의 하나로 청학동 소재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는 약 40여년 이상을 국가안보상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도시규모가 성장하면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 도시개발전략 수립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 사업,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국방장비의 현대화 등 내외적으로 이전을 위한 여건이 상당부분 성숙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의 이전요구도 설득력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면 우리시의 주도심 상권은 개발의 성장성이 증대되고, 현재 시행중인 청초호유원지-금호동주차장간 약 800미터 구간의 도로가 완전 개통됨으로서 교통의 흐름체계가 다변화될 수 있으며, 남·북 도심 간의 불균형 개발 해소,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시설 사업추진 등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 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 향후 추진계획, 군 당국의 기본 입장, 군 당국과의 협의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 후 청학동 지역 등 주도심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진기	서명	
제목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	담당실과	속초시장 활성화팀 등

주민의 가까운 대변자로서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작년 7월 취임 후 오직 속초시의 발전과 재래시장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중앙시장활성화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중앙시장에 상주시키며 국·내외 자치단체의 재래시장활성화 우수시책을 파악·도입하였고, 중앙정부를 찾아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확보하였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형주차장 조성, 접근도로망 개선, 비가림 시설의 설치사업 추진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일반 주민들의 심경은 접근성과 이용성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나 상인들의 친절의식이나 주변의 위생상태 제고를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점이 없다고 느끼게 하고,

등록시장·인정시장 상인회간 서로 힘을 모아 상인연합회를 구성하여 행정과 함께 전체 상인들이 효율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은 보행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점가에서 쇼핑객들과 부딪히게 되고 보관용 냉동시설도 아닌 스티로폼 용구에 얼음을 놓고 그 위에 진열된 수산물 구입을 위해 불쾌감을 감수하면서 재래시장을 찾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객들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상점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이 필요한 만큼을 구입하는 쇼핑을 즐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역신문은 지역의 금융권에서 교동 속초소방서 맞은편 일대에 대형마트를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청호동에 모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재래시장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과 지리적인 편리성이 양호한 교동지역에 또 다시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에 이제 막 바늘귀를 낀 각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재래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자각·자구노력이 없이는 시민들의 쇼핑성향 변화, 대형마트 진출에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취임 후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을 왜 그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는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본 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알려진 중앙상가 2층에 새로운 마트 개점, 교동지역에 대형 마트의 개점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형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일반시민, 상인, 대형상인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호동민들로부터도 동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팀으로 운영중인 중앙시장활성화팀의 5급 담당관에 대하여 조속한 금호동장 복귀를 요망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시장활성화팀 업무를 직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관이 불가하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모리츠와 중앙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텐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앙시장로 양방 통행이후 오후 4시 이후부터 6시30분까지 차량교행이 힘들고 정체현상으로 시장방문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